

제1회 하포모의고사

[1~2] 다음은 친구 간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호: 오늘 들은 [A]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 특강 재미있더라.

승우: 처음엔 들을 생각 없더니, 너 정말 집중하면서 듣던데.

지호: 그러게, 우리 반 애들 대부분이 신청하길래 따라서 신청한 거였는데 잘한 것 같아.

승우: (웃으며) 뭔가를 결정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쪽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특강 내용이 딱 네 얘기였구나.

지호: 그러네. ㉠년 특강에서 들었던 내용과 관련된 경험 없어?

승우: 당연히 있지.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라고 하면 웬지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이것도 특강 내용과 관련된 거잖아.

지호: ㉡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라....., 맞아. 한정된 것이어서 일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 특강에서 말한 희소성의 원리네.

승우: 맞아. 그런데 강의는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어제 좀 피곤하다.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지호: 왜? ㉢아, 아까 반장이 그러던데 너 이번 학기에 동아리 부장 돼서 학술제 준비로 바쁘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할 일이 많은 모양이구나.

승우: 응. 처음 해 보는 일이라 그런지 할 일도 많고 어렵네.

지호: ㉣내가 작년에 학술제 준비를 해 봐서 아는데 일이 많아서 혼자 하긴 벅차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내가 작년에 해 본 경험도 있으니까 도와줄게.

승우: 진짜? 정말 고맙다.

지호: ㉤아! 그리고 보니 이것도 오늘 들은 특강 내용과 관련되는구나.

승우: 우와, 그러네. 상대방과 공통된 경험이 있으면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 내용.

지호: 맞아. 정말로 얻은 게 많은 특강이었어.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질문을 통해 특강에서 들은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승우의 경험을 묻고 있다.
- ② ㉡: 승우 말의 일부를 단서로 하여 승우의 경험이 특강과 관련되는 내용임을 확인하고 있다.
- ③ ㉢: 반장의 말을 통해 얻은 승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승우의 상황을 추측하고 있다.
- ④ ㉣: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승우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
- ⑤ ㉤: 특강에서 들은 말을 인용하여 승우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고 있다.

2. <보기>는 [A]의 일부이다. <보기>의 [가]에 들어갈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강사: 오늘 특강 잘 들으셨나요? '다수가 보이는 경향, 희소성, 상대방과의 공통된 경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제시하는 사례를 특강 내용과 연결 지어 말해 볼 학생 있나요?

[사례]

"경회루 내부 특별 관람 사전 예약제가 실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약을 해서 와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문화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데다가 특별 관람 가능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웬지 경회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학생: [가]

강사: 좋아요. 제시된 사례를 특강 내용과 잘 연결했네요.

- ① 경회루 내부 개방으로 문화제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관심이 더욱 커졌다는 내용이니가 희소성의 원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② 경회루를 관람해 보고 싶던 차에 사전 예약제 실시 소식을 듣고 예약을 했다는 내용이니가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③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경회루의 관람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소식에 경회루를 관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내용이니가 희소성의 원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④ 특별 관람 신청을 사전 예약제로 받는다는 소식에 경회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내용이니가 사전 예약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⑤ 경회루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는 소식에 경회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내용이니가 상시적으로 문화제를 관람하는 사람들과의 공통된 경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3~5] 다음은 두 마을 간의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군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축제를 기획하면서 개최 장소를 A 마을과 B 마을 중에서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두 마을이 공동 개최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A 마을의 대표 A와 B 마을의 대표 B가 후속 협상을 하게 되었다.

A: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협상에서 다루지 못한 축제 공식 명칭에 대하여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B: 좋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A: 그러면 저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공식 명칭은 두 마을의 이름을 병기하되 저희 마을 이름을 먼저 표기했으면 합니다.

B: 글썄요. 저희도 저희 마을 이름이 앞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최지로 저희가 유력했던 상황에서 사실상 저희의 양보로 공동 개최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명칭과 관련해서는 저희의 의견을 수용해 주십시오.

A: 공동 개최와 관련해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B 마을도 공동 개최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축제 명칭은 각자의 축제 유치 의도를 고려하되 세부 조건을 조율해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B: 무슨 뜻인지요?

A: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B 마을은 축제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B: 그렇습니다.

A: 그런데 이미 유명한 B 마을과는 달리 저희는 저희 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그러니 축제 명칭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B 마을에 유리하도록 협상의 세부 조건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B: 글썄요. 축제 명칭에서 앞쪽에 표기되는 것은 그 의미가 큼니다. 저희 마을의 인지도가 이미 높다고 하더라도.....

A: 명칭에서 저희 마을 이름을 앞세우는 대신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B: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경제적 이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째, 명칭보다는 홍보 효과가 적지만 저희 마을 특산품을 축제 캐릭터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동 개최를 하게 되면 행사들을 서로 나누어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전체 행사 중 60%를 가져가겠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축제 공식 명칭과 관련하여 합의할 수 없습니다.

A: B 마을 특산품을 캐릭터로 만들면서 행사를 60%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배분 비율은 공동 개최에 걸맞게 50%를 원칙으로 합시다.

B: 그 제안은 저희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도 공동 개최에 대한 반대가 많거든요. 차라리 저희 마을이 유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단독 개최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A: 지난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같은 ○○군 마을끼리 온당치 않습니다. 단독 개최를 하더라도 저희 마을

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사 배분 비율은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B 마을이 원하는 다른 조건을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요?

B: 좋습니다. 이렇게 하죠. 행사 배분은 동일하게 50%씩 하고, 행사 선택은 하나씩 교대로 하되, 저희 마을부터 선택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수익성이 높은 행사를 저희 마을에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A: 음. 저희 마을 이름을 먼저 표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정도 조건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합시다.

3. 위 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지난 협상에서 논의하지 못한 사안을 언급함으로써 의제를 제시하였군.
- ② A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상 전에 알아본 B 마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군.
- ③ B는 A가 제안한 세부 조건이 협상 결렬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내비치며 A의 새로운 제안을 이끌어 내었군.
- ④ B는 A의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제안한 세부 조건을 수정하여 제시하였군.
- ⑤ A와 B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난 협상에서 합의된 사안이 수정되었군.

4. 위 협상에 나타난 A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제 타결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 ② 연쇄적인 질문을 통해 갈등 상황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제안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⑤ 가정적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내세운 근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의견이 정당함을 피력하고 있다.

5. 위 협상에서 A와 B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와 B 모두 상대방의 양보로 축제의 공동 개최가 가능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 ② A는 축제 명칭을, B는 행사 배분 비율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양보했기 때문이다.
- ③ A는 행사 선택의 순서에서, B는 축제 캐릭터와 관련해서 최초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양보했기 때문이다.
- ④ A 마을의 인지도 향상과 B 마을의 경제적 이득 증대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 ⑤ A가 바라는 효과적인 축제 홍보와 B가 바라는 마을의 화합 증진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6. <자료>와 같이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사항을 <보기>의 ㉠~㉣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부사어와 연결 어미의 호응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서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목적어의 누락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궁리하기 시작했다.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탈출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 피동의 중복
 • 그것은 오래전에 불리던 노래이다.
 → 그것은 오래전에 불리던 노래이다.

< 자 료 >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수록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작성할 수 있다.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지라도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7.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일반적으로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는 문장인데,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한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 유형들은 ㉠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을 할 때 쓰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① [A: 괜찮다면, 우리 여기서 잠깐 기다릴래요?
 B: 좋아요. 10분만 더 기다려요.
- ② [A: 다친 곳은 어떤가? 한번 보세.
 B: 보시다시피 많이 좋아졌습니다.
- ③ [A: 저기요. 먼저 좀 내립시다.
 B: 아, 예. 저도 여기서 내려요.
- ④ [A: 저 혹시, 모자를 벗어 주실 수 있을까요?
 B: 제가 방해가 되었군요. 미안합니다.
- ⑤ [A: 어디 보자. 내가 다 챙겼나?
 B: 거기서 혼자 뭐 해요. 빨리 나와요.

8. <자료>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 료 >

[중세 국어] 五欲은 누네 도흔 밋 보고져 귀에 도흔 소리 듣고져 고해 도흔 내 맏고져 이베 도흔 맛 먹고져 모매 도흔 옷 넙고져 흘 씨라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오욕은 눈에 좋은 빛 보고자, 귀에 좋은 소리 듣고자, 코에 좋은 냄새 맏고자, 입에 좋은 맛 먹고자, 몸에 좋은 옷 입고자 하는 것이다.

- ① ‘五欲은’이 ‘오욕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보조사 ‘은’이 있었군.
- ② ‘누네 도흔 밋 보고져’가 ‘눈에 좋은 빛 보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누네 도흔 밋’은 목적으로 쓰였군.
- ③ ‘귀에’가 ‘귀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부사격 조사 ‘에’가 있었군.
- ④ ‘도흔’이 ‘좋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도흔’은 용언의 관형사형이었군.
- ⑤ ‘먹고져’가 ‘먹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고져’는 종결어미로 쓰였군.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과학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해 왔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체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체에 해당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둘째,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셋째,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때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체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체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다. 이처럼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험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먼저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험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이 되지 못하지만, 험펠에 따르면 설명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험펠의 이론이 설명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긴 하면 모두 설명으로 인정해야 하는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모두 설명에서 배제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험펠과 달리 쉐먼은 설명이 논증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인과 개념에 주목했다.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는 쉐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험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원인은 독을 마신 것이지만, 독을 마시게 된 원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원인은도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 이에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는 문제는 결국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없다면, 설명을 인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설명이라는 불명료한 개념을 인과라는 또 하나의 불명료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9. 윗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험펠의 설명 이론이 지니는 의의
- ② 험펠의 설명 이론이 지니는 문제점
- ③ 험펠의 설명 이론에서의 설명과 논증의 관계
- ④ 쉐먼의 설명 이론이 험펠 이론에 비해 지니는 장점
- ⑤ 쉐먼의 설명 이론이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인 결과

10. 윗글에 따라 때, 험펠의 설명 이론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것이 건전한 논증이면 그것은 반드시 설명이다.
- ② 일상적 직관에서 설명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모두 설명은 아니다.
- ③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설명항에 포함되는 명제들은 반드시 참이다.
- ④ 피설명항은 특정한 맥락에서 보편 법칙에 따라 발생한 개별 사례이다.
- ⑤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피설명항은 반드시 설명항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11. 윗글로 미루어 볼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명 개념이 인과 개념보다 불명료하다는 문제
- ② 원인과 결과의 시공간적 연결은 불필요하다는 문제
- ③ 인과 개념이 설명의 형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
- ④ 결과를 야기한 정확한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
- ⑤ 피설명항에 원인을 제시하는 명제가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

12. <보기>의 [물음]에 대해 험펠의 이론에 따라 [설명]을 한다고 할 때, (가)~(다)에 들어갈 [명제]를 바르게 고른 것은? [3점]

<보 기>

[물음]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왜 30°일까?

[설명]

설명항 [보편 법칙: _____ (가)
 선행 조건: _____ (나)

피설명항 : _____ (다)

[명제]

ㄱ. A는 광선을 잘 반사하는 평면거울이다.
 ㄴ.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입사각은 30°이다.
 ㄷ.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30°이다.
 ㄹ.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다.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 ㄱ, ㄴ | ㄷ | ㄹ |
| ② | ㄱ, ㄹ | ㄴ | ㄷ |
| ③ | ㄴ, ㄷ | ㄱ | ㄹ |
| ④ | ㄹ | ㄱ, ㄴ | ㄷ |
| ⑤ | ㄹ | ㄱ, ㄷ | ㄴ |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양파(陽坡)*의 풀이 기니 봄빛치 느껴 있다
 소원(小園) 도화(桃花)는 밤비에 다 피거다
 아히야 쇼 묘히 머겨 눈밭 갈게 흐야라
 <제2수>

㉡ 잔화(殘花) 다 딛 후에 녹음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둠의 소리로다
 ㉢ 아히야 계면도 불러라 긴 조름 썬오자
 <제3수>

동리(東籬)에 국화 피니 중앙(重陽)이 거에로다
 자채(自蔡)*로 비즌 술이 흐마 아니 니것느냐
 ㉣ 아히야 자해(紫蟹)* 황계(黃鷄)로 안주 장만흐야라
 <제6수>

북풍이 노피 부니 압 피헤 눈이 딛다
 ㉤ 모첩(茅簷)* 촌 빗치 석양이 거에로다
 아히야 두죽(豆粥) 니것느냐 먹고 자라 흐로라
 <제7수>

[A] 이바 아히들야 새히 온다 즐겨 마라
 헌스흔 세월이 소년(少年)* 아사 가느니라
 우리도 새히 즐겨 흐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9수>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 양파: 별이 잘 드는 언덕.
 * 자채: 올벼. 철 이르게 익은 벼.
 * 자해: 꽃게.
 * 모첩: 초가지붕의 처마.
 * 소년: 젊은 나이.

1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가 지향했던 초월적인 삶의 세계가 회고된다.
- ② ㉡: 꽃이 떨어진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제시된다.
- ③ ㉢: 시름을 일시적으로나마 잊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표출된다.
- ④ ㉣: 미각을 돋우는 소재들을 통해 화자의 흥취가 드러난다.
- ⑤ ㉤: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집약되어 나타난다.

14. <보기>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늘그니 늘그니를 만나니 반가고 즐겁고야
 반가고 즐거오니 늘근 줄을 모를로다
 진실노 늘근 줄 모르거니 밋일 만나 즐거리라
 - 김득연, 「산중잡곡(山中雜曲)」 제49수 -

- ① [A]와 <보기>는 모두 젊음과 늙음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A]와 <보기>는 모두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와 <보기>는 모두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현재의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 대한 훈계가, <보기>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상대를 만난 기쁨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과거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태도가, <보기>에서는 상대를 통해 현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태도가 드러난다.

15.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시가(四時歌)는 사계절의 추이에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는 시가를 일컫는다. 사시가에서는 계절에 관한 시상이 드러나는 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동일한 어휘나 유사한 표현을 연마다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시어 및 구절을 먼저 제시한 후 화자의 반응이나 정취를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품에 따라서는 일상의 풍경을 도입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을 조명하거나,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를 대비하기도 한다.

- ① 사계절의 추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시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군.
- ② ‘아히야’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연 사이의 유기성을 부여하고 있군.
- ③ 계절이 다루어진 연은 자연의 모습이 먼저 묘사되고 화자의 반응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구성되는군.
- ④ 봄에 소를 먹여 논밭을 가는 것과 가을에 올벼로 빛은 술을 찾는 것은 일상의 풍경을 그려 낸 사례이겠군.
- ⑤ 각 연에서는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그러한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대비하고 있군.

[A] “진형수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 그렇지만 내가 진실로 한번 입을 연다면 죽히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 지난날에 형수가 나를 지나치게 무시하여 혼인을 박절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제 와서 내가 그 원한을 묻어 둔 채로 덕을 베풀어 주지는 못하겠다. 들으니 그대는 형수와 인척이 된다 하더군. 만일 형수가 살아서 옥문을 나서게 하고 싶다면 시험 삼아 나를 위해 형수의 딸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 주어 보거라. 그녀가 만일 효녀라면 스스로 거취할 방도를 필시 깨우치게 될 것이니라.”

오 낭중은 본시 권세를 두려워하여 예에 하고 대답만 할 줄 아는 위인이었다. 그는 공손하게 손을 모은 채 명을 받은 뒤 오 부인을 찾아가 조문화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 오 부인은 크게 노했다.

“조가 도적놈이 감히 우리 딸에게 욕을 보이려 한다고?”

그러자 진 소저가 분연히 고했다.

“옛날 효녀 중에는 스스로 관비가 되기를 청하여 제 아버지의 죽음을 면하게 한 자가 있었으며, 또한 자신을 팔아 제 부모의 장사를 치르게 한 자도 있었습니다. 소녀의 신체발부는 모두 부모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부친께서 중죄를 받을 형편에 놓이신 마당에 자식 된 자로서 ㉡ 어느 거름에 일신의 욕과 불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오 부인은 평소 소저의 빙옥 상설 같은 지조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눈물만 흘리다가 마침내 탄성을 말했다.

[B] “슬프다! 총계정에서 학을 읊은 시가 죽히 너의 성안(成案)이 되고 말겠구나. 내가 어찌 네 마음을 의심할 리 있겠느냐? 그러나 딸을 죽여서 그 아버지를 구한다면, 산 사람의 마음이 오죽이나 하겠느냐? 옛 사람이 이르기를, ‘황금을 걸어 놓고 도박을 벌이면 그 지혜가 더욱 어두워진다.’고 했지. 지금 내 마음은 황금을 건 것에 비할 바가 아니로구나. 네 스스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신하거라.”

진 소저는 ㉢ 추호도 망설이는 기색이 없이 친히 오 낭중을 향해 혼인을 허락했다. 오 낭중은 몹시 기뻐하며 조문화에게 돌아가 그녀의 말을 전했다. 조문화는 미칠 듯이 기뻐하더니 그 이튿날 다시 엄승을 사주해 진 공의 옥사를 천자에게 아뢰게 했다. 이윽고 천자는 진 공의 사형을 감하는 대신 운남으로 귀양을 보내게 했다.

(중략)

마침내 진 공은 오 부인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 뒤 진 소저는 침실로 돌아가 자리에 누운 채 밤낮없이 영영 울고 있었다. 그때 조문화의 가인(家人)들이 속속 찾아와 진 소저에게 혼인을 재촉했다. 진 소저는 유모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했다.

“방금 부모님을 작별했으므로 정화가 망극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수십 일 정도를 보내면서 마음을 조금 진정시킨 연후에 성례하면 좋을 듯합니다.”

조문화의 가인이 돌아가 진 소저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조문화의 아들은 다급하게 서둘러 마지않았다. 조문화가 말했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이전에 진 공이 병부에서 벼슬을 살던 때였다. 엄승의 가자(假子) 조문화는 진 소저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제 자식을 위해 진 공에게 혼인을 청한 적이 있었다. 그때 진 공이 엄한 말로 거절하자, 조문화는 매우 노하여 엄승에게 사주해 공을 노안부 제독으로 내쫓게 했다. 그 무렵에 다시 양식을 시켜 ‘진 공이 사사로이 태원의 돈 삼십만 냡을 훔쳤다.’고 무고하게 했다. 그리고 금위옥에 가둔 뒤 온갖 방법으로 죄를 조작하게 했다. 조문화는 오 부인과 진 소저가 옛집으로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의 중형 오 낭중이라는 자를 불러 놓고 말했다.

“인정상 본디 그럴 것이니 그 말대로 따르도록 하거라. 또한 저 아이는 이미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서두르지 않는다고 달아날 곳이 있겠느냐?”

사요일 뒤 조문화는 시비로 하여금 진 소지를 찾아가 살펴 보게 했다. 진 소지는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덮고 신음하고 있다가 희미한 목소리로 유모를 불러 놓고 일렀다.

“슬픔으로 심란하던 차에 다시 감기에 걸리고 말았네. 이제는 마음도 추스르고 병도 조절하여 속히 쾌차한 후에 부모님을 살려 주신 ㉠ 큰 은혜를 보답하려 하네. 그런데 지금 바깥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 내 마음이 편하질 않구려.”

그 사람이 돌아가 진 소지의 말을 조문화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조문화는 몹시 기뻐했다.

“진실로 뛰어난 효녀로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로구나. 이제 그 뜻에 순종하여 화를 둔우게 하지 마라. 앞으로 모름지기 매일 문밖에서 동정을 살피되 집 안에는 다시 함부로 들어가지 말거라.”

다시 10여 일이 지난 뒤 진 소지는 공의 행차가 이미 멀리까지 갔으리라 짐작하고 유모 및 시녀 운삼 등과 함께 야밤에 간단하게 행장을 꾸렸다. 그리고 모두 남장을 한 뒤 나귀 한 필을 끌고 회남을 향해 떠나갔다.

그 이튿날에도 조문화의 가인이 소지를 찾아갔더니 ㉡ 빈집만 황량할 뿐 다시는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몹시 놀랍고도 의아하여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저 집 소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마을 사람은 씩씩하게 대답했다.

“소지고 대지고 나는 모릅니다.”

그 사람은 무안만 당하고 돌아가 조문화에게 고했다.

-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

16.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 소지가 부모님과 이별한 뒤 집 안에 머문 것은 혼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 ② 조문화의 아들은 진 소지와와 혼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조급해하며 혼인을 서두르고 싶어 했다.
- ③ 조문화는 진 소지의 부모가 떠났다고 하여 아들과 진 소지의 혼사가 무산될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 ④ 운삼은 진 소지와 함께 밤중에 행장을 꾸려 길을 떠났다.
- ⑤ 마을 사람은 진 소지의 행방에 대해 조문화의 가인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다.

17.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청자와의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B]는 청자와의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 ② [A]는 지난 일을 들어 청자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고, [B]는 이전에 쓰인 글을 떠올려 청자에 대한 원망을 표출한다.
- ③ [A]는 청자에게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여, [B]는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여 청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

④ [A]는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전하고, [B]는 비교할 만한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드러낸다.

⑤ [A], [B] 모두 이상적 가치를 내세워 자신의 결정을 청자가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에 들어 가문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서사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임금과 신하의 권력 관계가 역전된 정치적 구조에서 권세 있는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이 소설에 반영된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가문의 문제에 연결되면서 가족 구성원이 고난을 겪는 서사 구성으로 드러난다. 이때 자신의 판단과 지략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적 인물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사리 판별을 돕는 인물이나 주변 인물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 ① 오 낭중이 가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을 보니, 사리 판별을 하여 가족 구성원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모습을 알 수 있군.
- ② 진 공이 옥에 갇히고 귀양을 가게 되는 과정을 보니, 권력을 가진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의 문제를 추측할 수 있군.
- ③ 진 소지가 길을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보니,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혜롭게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적극적 인물의 면모를 알 수 있군.
- ④ 조문화가 성사시키려 한 혼인 문제로 진 공의 가족이 고난을 겪게 되는 과정을 보니, 정치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유모가 조문화의 가인과 시비에게 말을 전하고 진 소지와 함께 남장을 하는 정황을 보니, 주변 인물이 적극적 인물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19. 문맥을 고려할 때 ㉠~㉣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
- ② ㉡: 없는 자가 잔밥 더운밥을 가리랴.
- ③ ㉢: 만사가 욕심대로라면 하늘에다 집도 짓겠다.
- ④ ㉣: 산이 높아야 옥이 난다.
- ⑤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